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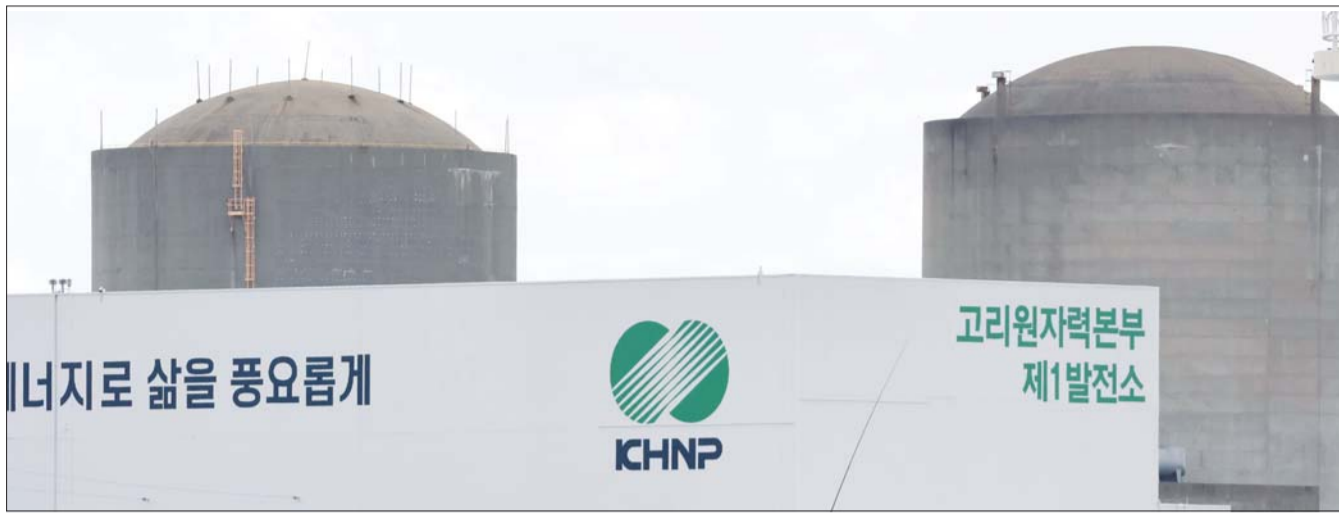
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운전 돌입... 원전10기 연장 추진

허가 만료 뒤 35개월 만에 재개
최신기술 적용해 안전성·성능 강화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실현 기대
2030년까지 고리3·4호기 등 확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고리 2호기가 약 3년에 걸친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35개월간의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마치고 4일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간 전력을 공급해온 고리2호기는 지난 2023년 4월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며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안전한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규제기관에 안전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뉴스시

성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3년 7개월간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발전소가 정지해 있던 기간 동안 한수원은 단순히 가동을 멈춘 것이 아니

라, 미래지향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우선 최첨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교체와 보강이 이뤄졌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한 가동 적합성 최종 판정을 받았다. 또 장기 운영에 대비한 핵

심 부품 정밀 진단 등 계통 점검도 이뤄졌다.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리2호기 재가동은 단순한 전력 공급

재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희천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에 기반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리2호기의 성공적인 계속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전 9기의 계속운전도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 등 후속 9기의 원전도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와 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개선 시행으로 더욱 안전한 계속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신고의제' 확대... 영세사업장 과태료 부담 줄였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의제 확대 성과
신규가입 53% 별도 신고 없이 처리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고의제' 확대 제도가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제도 확대 시행 1년 만에 전체 신규가입의 53%에 달하는 15만 6000건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제도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우, 이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공단이 도입한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함께 한 것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8월 19일 공단 본부(울산)에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PM콘서트(Process Modernization, 업무 처리절차의 최적화)'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이끈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날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

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임업을 병행하게 된 건설업자 A씨는 전담 인력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으나, 확대된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

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A씨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업장의 성립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

기 때문이다.

경영컨설팅 업체 사업주 B씨는 근로자 C씨를 채용하고 자격취득 신고만 한 상태였다. 예전 같으면 공단의 보완 요청과 사업주의 추가 신고가 오가는 동안 처리가 지체됐겠지만, 이제는 공단이 사업장 확인 즉시 성립 처리를 완료해 C씨의 보험 자격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불합리 관행 익명 제보창구 개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상담 대상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쪼개기 근로계약,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물론 차별 절차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전반을 포함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경북·전남 식품산업 혁신거점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식품융합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지방정부가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마, 생강, 햄프씨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고령친화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유공장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식품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수출이 연계된 혁신거점 조성 구상이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운항만 스타트업 플랫폼 '1876 BUSAN' 본격화

해양진흥공사·부산항만공사 협력
부산테크노파크 운영기관 선정
입주기업 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해운항만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 위탁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이 협약은 해운항만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에 목적을 둔다.

지난달 31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향후 1876 BUSAN의 운영 방안 및 입주기업 지원 이

행안(로드맵) 등에 대한 설명·논의가 진행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의 국산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창업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업무수탁 공모를 진행했다. 또 강소 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부산테크노파크를 최종 선정해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에 나

섰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테크노파크는 1992년 설립한 이후 지역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한 기업 육성 노하우와 산업 네트워크를 1876 BUSAN 운영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입주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셋업(set-up), 빌드업(build-up), 스케일업(scale-up)'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부산항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테스크베드) 기회를 제공해 스타트업



지난달 31일 개최된 '1876 BUSAN' 위탁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해진공

이 개발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효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